

미산 권영건 족친의 지극한 애족 승조 정신이 이룩한

아맹공 사당 중수



아맹공묘소



권오석(전 면장), 권태립(전 시의원), 권영건, 권택구, 권오순, 권태수 등(앞줄 왼쪽부터)

미산 권영건(渼山 權寧建, 검교공파, 시조후 34세. 아맹공 11세, 76세) 족친은 아맹공 권창진(啞盲公 權昌震) 선생의 퇴락한 재사 중수사업에 1억8백만원을掏出하여 영주시로부터 3억6천만원의 보조를 받아내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로써 아맹공의 재사와 사당이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는 만고에 빛날 업적이 아닐 수 없다.

권영건 족친은 경북 영주시 장수면 갈천2리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예천군 감천면에서 '현대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지는 예천읍내이다. 평소 남다른 애향심과 애족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대종회 부회장, 아맹공문친회장 표장, 대종원 총재 표창 등을 수차례 받았고 지역사회에서는 2013년 예천 문예발전기금 1천만원 회사 등 수많은 선행이 있었다. 이번에 영주시 장수면 성곡길39 소재, 아맹공 재사와 사당이 퇴락하여 절거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벗고 나서서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니 이에 감동한 주위 분들이 이를 기리는 조그만 표식을 세우고 서로의 우의를 기리는 자리가 가지게 된 것이다.

아맹공 재사는 영주 성곡리 안동권씨 재사(榮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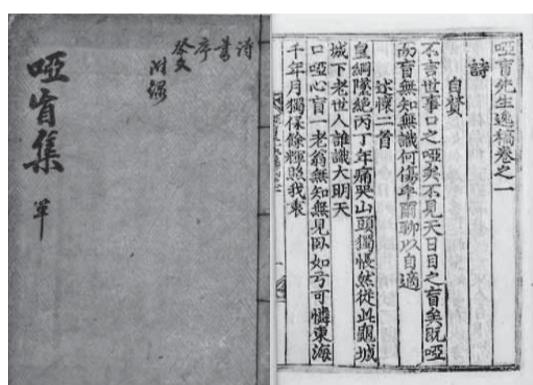
지난 8월 중수공로비를 세우고 기념촬영. 뒤에 아맹공사당과 재사가 보인다.

星谷里 安東權氏 齋舍)라 하며 소유자는 '안동권씨 검교공파아맹공문중'이다. 건물규모는 재사가 정면 5칸, 측면5칸, 흘처마, 서산각지붕이고 사당은 정면

3칸, 측면1.5칸, 흘처마, 맞배지붕이다. 특히 지난 10월 10일은 아맹선생의 기제사일이라 몇몇 후손이 조출하나마 제사를 올렸다.

글 권오철 기자

아맹공(啞盲公) 권창진(權昌震)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아맹(亞盲) 권창진(權昌震, 1597~1683)의 서문집인 「아맹집啞盲集」이다. 「아맹집」은 2권 1책의 『아맹일고(啞盲逸稿)』가 전한다.

권창진의 묘소는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에 있다. 권창진은 공조참의에 증직되었다. 1813년(순조13) 지역 사립의 공으로 권두문(權斗文, 1543~1617)·김대현(金大賢, 1553~1602)·김봉조(金奉祖, 1572~1630) 등과 함께 구호서원(鷺湖書院, 영주시 영주동)에 추향되었다. 구호서원은 1780년(정조4) 권정(權定)을 제향하기 위하여 건립한 서원인데, 흥선대원군의 서원훼철령으로 철폐된 후 지금까지 복설되지 않았다. 한편, 구성공원 내에 있는 대은정(大隱亭)은 후손들이 권창진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누정으로 1961년 현재 위치로 이전한 것이다.

아맹의 자찬(自讚)시는

不言世事 口之啞矣 불언세사 구지야의
不見天日 目之盲矣 불견천일 목지맹의
既啞而盲 無知無識 기아이맹 무지무식
何傷乎爾 聯以自適 하상호이 연이자적

세상일 말 안 해 입은 병어리
하늘 안 보니 눈은 봉사라네
아맹 아는 것 알 것도 없어
뭘 그냥 내키는대로 사세나

글 권오철 기자

권칠인 화폐본부장 추석맞이 이웃사랑

지역사회복지기관, 육군부대 장병들에게 위문품 전달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본부장 권칠인, 사진 오른쪽)는 9월 25일 추석을 맞이하여 경산시 관내 취약 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기관을 찾아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고 추석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또한, 9월 28일은 지역 황도부대인 제122연대 2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추석맞이 위문품을 전달했다.

권칠인 화폐본부장은 "화폐본부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지켜주는 장병들의 노고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장병들의 휴가 및 외출이 제한된 장병들의 어려움과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책임지는 사회복지기관의 애로사항을 경정하며 "화폐본부가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에 어려움을 돌아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청타임즈 권성옥 기자 제공



효심

권태강(대종회 고문(전 검교공파종회장))



효우충신(孝友忠信) 근검공서(勤儉恭恕) 이 여덟자는 인도지본(人道之本)이라 하였음은 유명한 유학자 권상규(權相圭) 선생이 쓴 권석두(權錫斗)의 묘갈명(본보)

2018년 12월 1일자 참조) 속

에 나오는 글로써 효(孝)를 첫 번째 인간의 근본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조 태사공께서 돌아가신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한 문헌 기록은 안타깝게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언제 장례를 치렀는지 등에 대해서도 온전(穩全)하게 전해지지 않았다. 대체로 장사(葬事)하여 모시고 500여 년 동안 실전(失傳)하여 찾지 못하였다. 아마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 기간 동안 많은 정치적 변동과 전란 등을 겪었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비와 바람, 풍수에 작용은 시조 묘소가 자연의 풍파를 견디며 원형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배경에서 시조 묘소를 찾는 것은 난사(難事) 중의 난사(難事)가 아니겠는가. 아마도 후손들은 시조 묘소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구나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으리라.

그러던 중 조선 성종 시기에 이르러 1470년 경 17세 평창군사(平昌軍事) 권옹(權雍)이 안동의 배소의 딸과 결혼하여 안동부 풍화현 화회촌(현 하회마

을)에 기거하고 있을 때 《동국여지승람》 안동대도호부편에 "김선펑묘(金宣平墓)는 부의 서쪽 고태장리(古苔莊里)에 있다. 장길묘(張吉墓)는 부의 서쪽 성곡리(城谷里)에 있다. 권행묘(權幸墓)는 부의 서쪽 본파곡리(本破谷里)에 있다"는 구절을 보고 유명한 지사(地師)를 대동하고 천등산 기슭을 두루 탐사하여 헤매던 중 드디어 태사공의 이석(誌石)을 발견하여 태사공의 묘소를 확인하게 되었다. 평창군사 권옹은 유명을 달리하면서까지 다시는 시조 묘소가 실전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묘는 시조 묘소의 계하(階下)에 장사 지낼 것을 유언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부사공(府使公) 권소(權紹, 검교공파, 20세)는 연산군 10년 갑자사화로 35세의 젊은 나이로 억울하게 옥사한 동계(桐溪) 권달수(權達手, 1469~1504)의 입양자(入養子)이다. 1556년(명종11) 안동부사로 재임한 권소는 능동의 시조 태사공 묘역을 정수(整修)하고 위토답(位土答)도 더 마련하였고, 제곡(祭穀) 1백석을 주어 이로써 제물을 갖추어 공헌(供獻)케 하였다. 삼태사묘(三太師廟) 또한 중수(重修)한 후 되게 이황에게 부탁하여 삼공신 사당을 증보 수리한 기문(記文)인 '삼공신묘증수기(三功臣廟增修記)'를 받았다. 퇴계는 '삼공신묘증수기'에서 안동부사 권소의 조획(措劃: 조치하고 획책함)을 얻어 세심히 다 갖추게 되어 유감이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 후손들은 안동부사 권소의 시조에 대한 효심을 본받고 깊이 감사해야 하며 후세에도 길이 전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원정공(原靖公) 권적(權適)에게 입은 창원황씨의 은혜

창원황씨 호장공파 28세 황병렬

안동권씨 원정공(原靖公) 권적(權適, 추밀공파, 15세)의 기록을 1650년대의 조선시대의 만성보인 씨족원류에서 그 단서를 찾게 되었다. 창원황씨는 도시조(都始祖) 학사공 황락(黃洛)은 서기 28년에 중국 후한의 유신(儒臣)으로 배를 타고 지금의 월남으로 사신을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경상북도 평해 월송리 안아진에 표착하게 되면서 한국 황씨로서 살아가게 된다. 때는 중국의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 유수가 신국(新國)을 세운 왕망을 치단하고 후한을 세운지 4년이 지난 때이다. 유수가 후한의 황제가 되었지만 유방이 세운 한나라의 전역을 전부 되찾지는 못하였다. 항거하는 제후들에게는 무력으로 제압하여 복속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진을 하여 복속을 시키기 위해서 교지국 지급의 월남으로 사신을 떠나던 중이었다.

서기 23년 왕망이 죽고 신국의 세력인 세계 최초 김씨인 김일제의 후손들은 일본과 경상도 일대로 도주를 하였다. 서기 24년경에는 김해김씨인 김수로왕의 일행들이 먼저 경상남도 지역에 들어와 있었다. 왕망의 세력과 후한의 세력은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경상북도 평해 월송리 안아진에 활씨들은 한국의 황씨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아직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던 때라 족보를 기록할 수도 후손들에게 전할 수도 없었다. 자손은 번성하였다. 평해에 자리 잡은 장남은 갑고(甲古)라 하고 전라도 장수에 자리잡은 둘째는 을고(乙古)라 하고 경상남도 의장(현 창원)에 자리잡은 셋째는 병고(丙古)라 했다. 그 후손들은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로 들어서면서 후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160년경에 의장지역에서 호족의 장인 정조호장(正朝號長)에게는 2명의 손이 처남이 있다. 큰 처남 황진선에게는 고령왕실의 종묘제사를 관장하는 침원서령을 제수 받게 하고, 둘째 처남에게는 사제간 주부를 제수 받게 해준다. 처조카 황승후는 신호위의 무관으로 벼슬길에 오르는데 1357년 신호위 정용중장장이 된다. 황승후는 고려의 명문가인 죽주안씨를 부인으로 맞는다. 죽주안씨의 6촌 여동생은 고려 공민왕의 네 번째 왕비인 정비(定妃)로서 후일 고려 수창궁에서 이성계의 강압에 의해 고려의 어보를 물려주는 비운의 왕비이다. 원정공은 고려 우왕 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안동권씨 족보에는 그 기록되어 있다. 그때가 1374~1388년이나 그 이전에는 처조카인 황승후와는 같은 무장으로서 흥건적과의 전투에도 함께 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창원황씨 호장공과 7세 황승후는 자부(子婦)를 맞이하는데 무송유씨를 얻었으나 자손을 두지 못한다. 자손을 두기 위해 안동권씨를 후실로 들여서 3남 1녀를 둔다. 현재 창원황씨 호장공과 전체는 안동권씨 할머니의 후손이다.

원정공(原靖公)에게는 첫 번째 부인 남양홍씨가 있었으나 자식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계실(繼室)로 출가를 한 것이다. 후실로 출가하지 않았음은 1650년대 조종운의 씨족원류에 원정공(原靖公)의 계실(繼室)이라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정공(原靖公)은 창원황씨 가문의 사위가 된 것이다. 장인 이 1308년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얻지 못한



황씨 시조 황락과 황씨 본관 내력을 기록한 비

것을 알게 된 원정공(原靖公)은 장인이 본직을 받도록 힘을 쓴다. 그 덕분에 장인 황유는 충혜왕이 왕위에 오른 바로 그 다음 해인 1331년 드디어 본직을 받게 된다. 실제로 23년 만에 본직을 받은 것이다. 직책은 전객령으로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직책의 정 3품 벼슬이다. 그리고 동래부사로 외직으로 나가 벼슬하는데도 원정공(原靖公)의 힘이 컸다. 활문(黃門)에는 이런 기록이 전혀 없다. 그러나 23년 만에 본직에 나갈 수 있었음과 충혜왕이 왕이 되고 원정공(原靖公)이 충혜왕의 종신(寵臣)인 것을 고려하면 충분한 근거가 된다.

충혜왕은 1330~1332년간 왕위에 올랐다가 다시 원나라로 잡혀간다. 1338년 아버지 충숙왕이 승하하자 1339년 다시 임금 자리에 오른다. 충혜왕이 정적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원정공(原靖公)은 혁혁한 공을 세운다. 원정공(原靖公)에게는 2명의 손이 처남이 있다. 큰 처남 황진선에게는 고령왕실의 종묘제사를 관장하는 침원서령을 제수 받게 하고, 둘째 처남에게는 사제간 주부를 제수 받게 해준다. 처조카 황승후는 신호위의 무관으로 벼슬길에 오르는데 1357년 신호위 정용중장장이 된다. 황승후는 고려의 명문가인 죽주안씨를 부인으로 맞는다. 죽주안씨의 6촌 여동생은 고려 공민왕의 네 번째 왕비인 정비(定妃)로서 후일 고려 수창궁에서 이성계의 강압에 의해 고려의 어보를 물려주는 비운의 왕비이다. 원정공은 고려 우왕 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안동권씨 족보에는 그 기록되어 있다. 그때가 1374~1388년이나 그 이전에는 처조카인 황승후와는 같은 무장으로서 흥건적과의 전투에도 함께 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창원황씨 호장공과 7세 황승후는 자부(子婦)를 맞이하는데 무송유씨를 얻었으나 자손을 두지 못한다. 자손을 두기 위해 안동권씨를 후실로 들여서 3남 1녀를 둔다. 현재 창원황씨 호장공과 전체는 안동권씨 할머니의 후손이다.

황문(黃門)은 사위인 원정공(原靖公) 덕분에 벼슬길에 올라서 문종을 꽂고 피워고, 안동권씨 할머니로 인해서 후손을 두었으니 이로서 안동권씨와는 뭘레아 뭘 수 없는 인연을 가졌다. 이런 역사 때문에 창원황씨 호장공과는 안동권씨와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 돕고자 하고 있다.